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조통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70호 [루체 제25048호] 주제 104 (2015)년 9월 27일 (일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끌까지 완성하자!

## 백두의 혁명전통을 빛나게 계승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끌까지 완성할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분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혜산시에 높이 모시였다

위대한 당의 령도파라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이 총봉격전의 기세드높이 10월의 대축전장에 힘차게 들어서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을 해산시에 높이 모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우리 혁명의 시원이 열린 역사의 땅에 배두산천출위인들의 통상을 높이 모시게 된 도내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 청년 학생들은 무한한 감격과 환희에 담쳐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통상제막식이 25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광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제막식장에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파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찰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파라 주체혁명위업을 끌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판들이 제막식장에 세워져 있었다.

제막식장 상공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라는 구호들과 『결사옹위』, 『일심단결』이라는 글씨를 드려운 대형기구들이 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방렬에는 조선인민군, 해군, 항공, 육군 및 반항공군, 로동적위군에 위병대가 정렬해 있었으며 군기들이 세워져 있었다.

김영남동지, 김기남동지, 박범계동지와 려철만 내각부총리, 노광철 인민부수제 1부부장, 려상원 향장도당위원장 회의임비서, 리성국 향장도인원회 위원장,

판례부문 일군들, 로역혁신자들, 투격대원들, 도내군로지들, 청년학생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이 제막식에 참가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로 제막식은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제막식을 당과 국가, 군대, 빙강도의 책임일군들이 하였다.

순간 우리 당파 인민의 영원이시며 전선백승의 기치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차운로운 영상을 친연히 빛내고 있다.

환영 꽂이 울리는 가운데 전제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을 우러러 흥을 같은 고무풍선들이 날아올라 제막식장의 하늘과를 이를듯하게 장식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부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파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에 전정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통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이어 빙강도내 당, 청원기관, 군로단체, 각급 기관, 기업, 공장, 공장, 대학들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부대 등의 명으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다.

꽃바구니들의 행진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씨가 써여져 있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을 우러러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회 위원이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제막식에 참석하였다.

연설자는 조선혁명의 발원지이고 승리의 상징인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솟아온 빛나는 빙강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을 높이 보신것은 수령님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는데서 커다란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은혜로운 사랑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통상을 높이 모시고 언제나 절세위인들의 데상의 모습을 몸가까이 뵈오며 자애로운 그 품 속에서 천만년 살고싶어하는 향강도안의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넘원과 소망을 해아리시여 북부 국경 판문도시인 해산시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통상을 정중히 모시도록 하여 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설자는 향강도인의 전체 인민들과 온 나라 천민군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백두산과 국의 영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 영원히 제막식장에 모시되 있으며 우리 당파 인민의 최고령도자 이 선경에 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삼아 드리였다.

그는 도안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과 불멸의 업적을 결경히 옹호하고 수하고 꿀없이 빛내 이며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결사奉절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선군조선의 운명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정다해 받드는 길에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 비치는 우리 모두의 가장 순결한 향심과 도덕의리가 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도안의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의도대로 위대성교양, 김정일에 국주의 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에 화력을 집중하고 백두산지구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들을 더욱 흥흥히 꾸려며 향강도를 그 어느 고장보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새롭게 나래치는 곳으로 되게 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당의 경제 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한사랑같이 떠쳐나 도안의 경제전반을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고 해산시를 비롯한 도의 면모를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키며 갑자기 도시의 통장홀을 더 높이 부리으로써 백두산기술에서부터 사회주의 만세소리, 노동당만세소리가 울려퍼지게 되어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두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파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파라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씨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제막식은 『수령님과 장군님은 함께 계시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통상에 대한 열정을 듣고 경건한 마음으로 수령님들의 통상을 틀어보았다.

[조선중앙통신]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경사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태양같이 환히 웃으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우리 모두의 가슴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뿐어버리고 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향강도의 나무한 그루, 풀 한포기에도 나리를 찾기 위해 껴들려 쓰운 향일혁명렬렬의 넋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백두산과 삼지연, 보현보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찾고 또 찾으시여 혁명사적사업과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힘 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오로지 국과 혁명,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위대한 혁명가,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조선혁명의 진리를 밝혀주시고 우리 당과 국가, 군대를 창건하시였으며 한세대에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퇴승하시는 군사적기적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온 세상이 부려워하는 책임과를 헤아리고 있다.

준엄한 전화의 날님에 벌써 승리한 때임을 나다보시고 맥무고원일대에 새로운 농장을 창설해도록 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에는 당시 국영5호종합농장을 찾으시여 반당반혁명종파자를 능동으로부터 농장을 지켜주시고 끊임없는 헌신과 고로를 바쳐가며 북부고지대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적격을 주고 민족재생의 새 아침을 안아오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 43(1954)년 10월 향강도를 새로 내오도록 하여 주시고 수십차례에 걸쳐 도의 사업을 향지에서 지도하시면서 나아갈 앞길을 헤아려 밝혀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나무한 그루, 풀 한포기에도 나리를 찾기 위해 껴들려 쓰운 향일혁명렬렬의 넋이 깃들어있다고 하시면서 백두산과 삼지연, 보현보를 비롯한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를 찾고 또 찾으시여 혁명사적사업과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힘 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준엄한 전화의 날님에 벌써 승리한 때임을 나다보시고 맥무고원일대에 새로운 농장을 창설해도록 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후에는 당시 국영5호종합농장을 찾으시여 반당반혁명종파자를 능동으로부터 농장을 지켜주시고 끊임없는 헌신과 고로를 바쳐가며 북부고지대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으시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비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강성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업적은 천추만대에 걸어빛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혁명생애의 자속은 백두산이 높이 솟은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 향강땅에 뜨겁게 새겨져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백두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백두산밀영에서 태평하여 빨찌산의 아들로 성장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향강도를 수십차례나 현지지도하시면서 도의 사업을 혁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찌기 1950년대에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에 대한 혁사적인 첫 담사행군길을 향기하시고 용맹파 위훈의 활무대인 밤전소전설장으로 온 나라 청년들을 불러주시었으며 외국방문을 마치신 길로 불편하신 몸이었지만 청년 풍력대원들에게 힘과 고무를 안겨주시며 산세 험한 건설장에 까지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 깊으신분은 정녕히 세상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대홍단지구를 오늘의 청산리, 사회주의농촌의 본보기 단위로 전면적 향촌사업을 전개하시려고 크나큰 힘을 바쳐오시였으며 비가 오나 쉬운지 오나 쉬임없이 향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면서 백두대지에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지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해산천년왕산, 해산천발봉장, 해산강 철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사업을 향지에서 지도해주시며 도의 경제사업전반을 향기롭게 꾸려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지난날 사람 못살 고장으로 베릴반면 향강땅이 살기 좋았던 일련의 향촌사업과 그를 통해 향강도를 인민의 락원으로 범모시키기 위하여 끝없는 로고를 다 바쳐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은 길이길이 전해질 것이다.

연설자는 지난날 사람 못살 고장으로 베릴반면 향강땅이 살기 좋았던 일련의 향촌사업과 그를 통해 향강도를 인민의 락원으로 범모되고 나리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이룩 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언제나 향강도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도가 나아갈 길을 향기롭게 밝혀주시며 걸음걸음을 이끌어

밥기하시고 용맹파 위훈의 활무대인 밤전소전설장으로 온 나라 청년들을 불러주시었으며 외국방문을 마치신 길로 불편하신 몸이었지만 청년 풍력대원들에게 힘과 고무를 안겨주시며 산세 험한 건설장에 까지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 깊으신분은 정녕히 세상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해산천년왕산, 해산천발봉장, 해산강 철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사업을 향지에서 지도해주시며 도의 경제사업전반을 향기롭게 꾸려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지난날 사람 못살 고장으로 베릴반면 향강땅이 살기 좋았던 일련의 향촌사업과 그를 통해 향강도를 인민의 락원으로 범모되고 나리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이룩 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언제나 향강도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도가 나아갈 길을 향기롭게 밝혀주시며 걸음걸음을 이끌어

밥기하시고 용맹파 위훈의 활무대인 밤전소전설장으로 온 나라 청년들을 불러주시었으며 외국방문을 마치신 길로 불편하신 몸이었지만 청년 풍력대원들에게 힘과 고무를 안겨주시며 산세 험한 건설장에 까지 찾아오신 위대한 장군님 깊으신분은 정녕히 세상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해산천년왕산, 해산천발봉장, 해산강 철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사업을 향지에서 지도해주시며 도의 경제사업전반을 향기롭게 꾸려주시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조선혁명의 발원지이고 승리의

상징인 혁명의 성지 향강땅에 드넓게 새겨져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백두의 칼바람이 휘몰아치는 백두산밀영에서 태평하여 빨찌산의 아들로 성장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향강도를 수십차례나 현지지도하시면서 도의 사업을 혁명하게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찌기 1950년대에 백두산지구 혁명

발원지로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모시고 일찌부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향일무장투쟁시기 백두산지구에서 조국해방성전의 총소리를 높이 울리시며 일제에게 심대한 정치군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원수 각하

각하 나는 2015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 67돐에 즈음하여 나자신과 정부의 이름으로 각하께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와 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각하께 축하를 드리면서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귀국에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나미비아공화국 대통령

하계개인고보 2015년 8월 28일 원드후크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존경하는 김정은원수각하**

경의를 표합니다.  
나는 천선적인 귀국의 민족적명절에 즈음하여 나자신과 그리고 바레인왕국 인민의 이름으로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와 축복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기회에 각하께서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아울며 당시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귀국인민에게 끊임없는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바레인왕국 국왕 하마드빈이싸알할리파

2015년 8월 30일 마나마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각하께 그리고 조선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말리공화국 대통령

이브라힘부바까르케이타

2015년 9월 9일 바마코

평양 조선로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맞는 뜻깊은 이 시각 각하께 그리고 조선인민에게 말레이민과 나자신의 이름으로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는 각하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을 축원하면서 아울러 천선적인 조선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세르주싸르끼샨

2015년 9월 9일 예레반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각하께 깃보자인민의 이름으로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당신께서 건강하고 행복하실것과 조선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당신께 축원합니다.

나는 또한 천선적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에게 평화와 안정, 진보와 번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각하의 위대한 령도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를 이룩하고 모든 분야에서 발전과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두 나라사이에 전통적인 친선과 현대성, 협조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1위원장각하께서 다시 한번 열렬한 축하를 드리며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캄보디아왕국 국왕

모하메드 6세

2015년 8월 31일 라바트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모리파니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마로끄왕국 국왕

모하메드 6세

2015년 8월 31일 라바트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모리파니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노로돔시하모니

2015년 9월 9일 베이징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모리파니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캄보디아왕국 국왕

노로돔시하모니

2015년 9월 9일 베이징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모리파니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세르주싸르끼샨

2015년 9월 9일 예레반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모리파니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세르주싸르끼샨

2015년 9월 9일 예레반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모리파니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세르주싸르끼샨

2015년 9월 9일 예레반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모리파니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세르주싸르끼샨

2015년 9월 9일 예레반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모리파니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세르주싸르끼샨

2015년 9월 9일 예레반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모리파니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세르주싸르끼샨

2015년 9월 9일 예레반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모리파니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세르주싸르끼샨

2015년 9월 9일 예레반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모리파니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세르주싸르끼샨

2015년 9월 9일 예레반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모리파니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세르주싸르끼샨

2015년 9월 9일 예레반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모리파니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세르주싸르끼샨

2015년 9월 9일 예레반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모리파니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경의를 표합니다.

아르메니아공화국 대통령

세르주싸르끼샨

2015년 9월 9일 예레반

평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령도자

**김정은각하**

각하 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경절에 즈음하여 모리파니정부와 인민 그리고 나자신의 이름으로 각하께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각하께 가장 송고한

# 백두대지에 울려퍼진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

##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침수지역 주민들 새집들이 진행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지구에 새로 생긴 마을에서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백두대지의 산발을 뒤흔들며 높이 울려퍼지고 있다.

인민사랑의 장정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로서 온 나라 인민들에게 크나큰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밭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에 떠 반들여 발전소지구에 로동당시 대의 또 하나의 선경, 새 풍경이 생겨난 현실이 너무도 꿈만 같아 새 집입주증을 받아안은 백암군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커 진행된 살림집지구들에서는 웃음과 노래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완공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때에 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살림집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새집들이가 전행된 것은 조

국땅 그 어디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로서 온 나라 인민들에게 크나큰 기쁨을 더해주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모시는것처럼 우리 인민을 밭들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우리 당의 크나큰 사랑에 떠 반들여 발전소지구에 로동당시 대의 또 하나의 선경, 새 풍경이 생겨난 현실이 너무도 꿈만 같아 새 집입주증을 받아안은 백암군 인민들의 가슴가슴은 커 진행된 살림집지구들에서는 웃음과 노래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 완공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때에 문명국의 체모에 어울리는 살림집들이 훌륭히 일떠서고 새집들이가 전행된 것은 조

국땅 그 어디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 만세소리가

자기들에게 차례진것만 같아 웃음 절반, 눈물 절반으로 감격을 금치 못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청년돌격대원들의 눈睛에도 뜨거운것이 흘러내리었다.

인민들이 언제나 꽃속에서 웃고 노래부르기를 바라며 일곱번이나 떠다니며 꽃풀내 뿐리를 내린 수많은 코스모스의 잎새들이 그들의 위훈을 말없이 전하여주는듯 가볍게 설레이고 있었다.

도와 군의 책임일꾼들, 청년돌격대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새 집으로 들어선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우러러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행복의 보금자리에 살림을 짜게 된 사연을 절절히 아뢰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살림집에 입사하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유령림산사업소 직원반장 정영학은 눈물에 젖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제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는 우리 당의 뜻을 만들어 힘찬 투쟁을 벌여온 청년돌격대원들과 인민군인들의 그 위훈을 어떻게 한두마디의 말로 표현할수 있으랴.

인민들이 언제나 꽃속에서 웃고 노래부르기를 바라며 일곱번이나 떠다니며 꽃풀내 뿐리를 내린 수많은 코스모스의 잎새들이 그들의 위훈을 말없이 전하여주는듯 가볍게 설레이고 있었다.

도와 군의 책임일꾼들, 청년돌격대원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새 집으로 들어선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우러러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행복의 보금자리에 살림을 짜게 된 사연을 절절히 아뢰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다녀가신 살림집에 입사하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은 유령림산사업소 직원반장 정영학은 눈물에 젖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제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아안게 될 줄 상상이나 하였겠습니까. 정말이지 꿈속에서 도 그려보지 못했습니다. 살림집을 보면 불수록 이것이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날 줄 모릅니다.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새 집에 입사한 모든 가정들이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부릅니다.』

산골지대의 특성에 맞게 아담하면서도 깨끗하게 꾸려놓은 살림집의 내외부를 돌아보는 인민들의 기쁨은 끌이 없었다.

넓직하고 시원하게 설계된 살림방들과 인민들의 현리를 최대한으로 도모할수 있게 꾸려진 부엌과 창고, 우리 당의

사랑이 깃든 부엌세간과 가구비품은 물론 땔감파 비자루, 삼태기, 눈가래까지 있고 터발에 가을남새까지 심은 살림집을 받은 인민들의 얼굴에서는 시종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알뜰하게 무져놓은 장작더미 위에 불쏘시개까지 놓인 것을 본 인민들의 감격은 절정에 달하였다.

『제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아안게 될 줄 상상이나 하였겠습니까. 정말이지 꿈속에서 도 그려보지 못했습니다. 살림집을 보면 불수록 이것이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날 줄 모릅니다.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새 집에 입사한 모든 가정들이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부릅니다.』

산골지대의 특성에 맞게 아담하면서도 깨끗하게 꾸려놓은 살림집의 내외부를 돌아보는 인민들의 기쁨은 끌이 없었다.

넓직하고 시원하게 설계된 살림방들과 인민들의 현리를 최대한으로 도모할수 있게 꾸려진 부엌과 창고, 우리 당의

사랑이 깃든 부엌세간과 가구비품은 물론 땔감파 비자루, 삼태기, 눈가래까지 있고 터발에 가을남새까지 심은 살림집을 받은 인민들의 얼굴에서는 시종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알뜰하게 무져놓은 장작더미 위에 불쏘시개까지 놓인 것을 본 인민들의 감격은 절정에 달하였다.

『제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불쓰시개까지 미련하여준 그 손길에서 인민들은 우리 당을 꾸려보지 못했습니다. 살림집을 보면 불수록 이것이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떠날 줄 모릅니다.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새 집에 입사한 모든 가정들이 로동당만세, 사회주의만세를 목청껏 부르고 또 부릅니다.』

『여기서 울려나오는 인민들의 기쁨과 행복의 웃음소리는 백두대지의 불야경과 함께 터져 오를 인민들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의 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안겨준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의 영예와 긍지를 한생토록 간직하고 언제나 강성국가건설의 둘째 구를 열어제끼는 전위부대가 되겠습니다.』

백암땅의 두께 산골들에 일떠선 인민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는 백두청춘들의 위훈을 만사람의 심장속에 새겨주며 해빛을 발아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백두대지에 펼쳐진 로동당시대의 회한한 새 풍경은 우리 당의 70년 역사와 더불어 청년강국의 억새 기둥을 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길이전하며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사에 빛나는 한계로 기록될것이다.

글 및 사진 현지보도반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 아래 행복하고 보람찬 생활을 마음껏 누리게 된 기쁨과 환희에 넘쳐 있는 침수지역 주민들

# 완공의 날을 앞당기며 폭풍쳐 내달리는 총진격의 기상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장에서

## 우리는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

조선인민군 김성덕 소속 부대에서

미래과학자거리!  
우리 당의 과학중시,  
미래사랑의 숭고한 뜻  
이 파악 어떤 것인가를  
세계 앞에 보여 주게 될  
인민사랑의 새 거리이다.  
이 거창한 건설장엔 하늘을  
찌를 듯이 솟구친 고층, 초고층 살  
줄이는 등 여러 가지 기술혁신안  
을 도입하여 폴조공사와 외부미  
장을 빠른 기간에 완성한 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다.  
이들은 그 기세로 타일붙이기  
작업에 달려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주체의 사회주의 건축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제일  
주인건축입니다.』

여기는 고급종 학교건설!

교실들은 물론 실험실과 실습  
실들도 그뿐 아니라 진학교육관

는 지금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 세 세기 교육단  
위로서의 체제에 맞게 단련한  
단장을 한 건물의 외부와 환하게  
꾸려진 실내의 백수십개에  
달하는 방들을 돌아보면 하나하나  
의 창조물에 비친 군인건설자  
들의 애국심을 느낄 수 있다.

그들의 불같은 열의는 건물벽  
체에 나붙은 글자에 드러난다.

조국의 수호자, 행복의 창조자!

폴조공사는 시작되어 불과 두달

남짓한 기간이다.

길지 않은 그 나날 조선인민군  
김성덕 소속부대 장병들이 당시의  
명령을 받아온 후에 군인건설자  
들의 애국심을 느낄 수 있다.

가슴에 푸드러운 이어기가 있다.

당에서 정해준 시간에, 당에

서 요구하는 높이에서 공사를

완공의 날이 하루하루 다가  
오는 요즘 미래과학자거리 2  
단계 건설장은 빠른 시일에도  
완공의 힘성을 레버리기 위한  
치열한 격전장을 향할 계획하고  
있다.

최상의 문명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창조되는 대고조전역에  
서 완공의 날을 확신 있게 마  
중해가는 위훈창조의 기수를 속  
에는 속도 전쟁

년돌격대지도국  
아래 여러 단위  
청년돌격대원들  
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 전투장들에서 창조  
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  
정신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영웅적 뚝심과  
위로에 힘입어 고무주동합  
니다.』

눈부리 어득한 35층 살림집  
과 그 아래단에 형성되는 봉사  
시설건설, 종전의 고층살림집  
건설공사를 맡은 이곳 청년돌격대  
원들의 결사적인 투쟁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

육탄으로 돌격로를 열어나간  
영웅선사처럼 격렬한 전방파  
도 같은 대건설 전투장에서 이들  
의 창조적 위훈은 아름다운 자우

완공하기 위해 휘둘조립, 해체  
시간을 조건에 비해 절반으로  
줄이는 등 여러 가지 기술혁신안  
을 도입하여 폴조공사와 외부미  
장을 빠른 기간에 완성한 부대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이다.  
이들은 그 기세로 타일붙이기  
작업에 달려들었다.

시공경력 있는 대원들은 불파  
손에 힘을 정도였다.

시간은 긴박하고 면적은 거의

4 000m<sup>2</sup>에 달하였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군인들은

없었다. 그들은 전호가에서 적진  
을 향해 조성, 조성을 맞추고 방어  
작전을 당기는 심정으로 한창한장  
의 타일을 붙여나갔다.

1mm!

김정봉 소속구분  
대 전투원들인 박  
금봉, 박윤혁 등 무  
비롯한 부대 군  
인들의 마음속에  
는 이 사소한 편차  
를 허용할 공백도  
없었다. 한번 안되  
면 여려번 반복하  
면서 한창한장의  
타일시공에 드거운  
에 국심을 기울인  
정평일 소속구분대  
대원들은 김정봉, 흥  
평월동무를 비롯한  
부대의 군인건설  
자들.

높은 기술 기능  
이 요구되는 창문  
판을 설치하고 완  
성하는 작업은 종

전 같으면 한사람이 하루동안에  
해야 할 과제였다. 하지만 당장  
한 일꾼들을 눈앞에 둔 군인건  
설자들은 기존판례를 깨뜨리며  
밀려온 파제를 2~3배 이상 수  
행하는 전례없는 실적을 기록하  
고 있다.

조물벽체에 광장률을 조립하  
는 작업이 계기되었을 때에도 온  
갖 어려운 조건들을 이겨내며 5  
일은 걸려야 한다며 공사파제를  
또다시 2일 만에 완성하는 뻔이  
은 기적을 창조한 이들이다.

파연 그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듯 높부신 기적을 창조하며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질적으로  
행하는 전례없는 실적을 기록하  
고 있다.

시공경력 있는 대원들은 불파  
손에 힘을 정도였다.

시간은 긴박하고 면적은 거의

4 000m<sup>2</sup>에 달하였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군인들은

없었다. 그들은 전호가에서 적진  
을 향해 조성, 조성을 맞추고 방어  
작전을 당기는 심정으로 한창한장  
의 타일을 붙여나갔다.

1mm!

김정봉 소속구분  
대 전투원들인 박  
금봉, 박윤혁 등 무  
비롯한 부대 군  
인들의 마음속에  
는 이 사소한 편차  
를 허용할 공백도  
없었다. 한번 안되  
면 여려번 반복하  
면서 한창한장의  
타일시공에 드거운  
에 국심을 기울인  
정평일 소속구분대  
대원들은 김정봉, 흥  
평월동무를 비롯한  
부대의 군인건설  
자들.

높은 기술 기능  
이 요구되는 창문  
판을 설치하고 완  
성하는 작업은 종

전 같으면 한사람이 하루동안에  
해야 할 과제였다. 하지만 당장  
한 일꾼들을 눈앞에 둔 군인건  
설자들은 기존판례를 깨뜨리며  
밀려온 파제를 2~3배 이상 수  
행하는 전례없는 실적을 기록하  
고 있다.

조물벽체에 광장률을 조립하  
는 작업이 계기되었을 때에도 온  
갖 어려운 조건들을 이겨내며 5  
일은 걸려야 한다며 공사파제를  
또다시 2일 만에 완성하는 뻔이  
은 기적을 창조한 이들이다.

파연 그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듯 높부신 기적을 창조하며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질적으로  
행하는 전례없는 실적을 기록하  
고 있다.

시공경력 있는 대원들은 불파  
손에 힘을 정도였다.

시간은 긴박하고 면적은 거의

4 000m<sup>2</sup>에 달하였다. 그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군인들은

없었다. 그들은 전호가에서 적진  
을 향해 조성, 조성을 맞추고 방어  
작전을 당기는 심정으로 한창한장  
의 타일을 붙여나갔다.

1mm!

김정봉 소속구분  
대 전투원들인 박  
금봉, 박윤혁 등 무  
비롯한 부대 군  
인들의 마음속에  
는 이 사소한 편차  
를 허용할 공백도  
없었다. 한번 안되  
면 여려번 반복하  
면서 한창한장의  
타일시공에 드거운  
에 국심을 기울인  
정평일 소속구분대  
대원들은 김정봉, 흥  
평월동무를 비롯한  
부대의 군인건설  
자들.

높은 기술 기능  
이 요구되는 창문  
판을 설치하고 완  
성하는 작업은 종

자라는 자부심을 새겨안  
고 그 글자를 심장의  
피로 새겼고 모든 정열을  
기울이었다.

부대 적으로 꾸려진  
배움터에서 자기들의 자식들이

공부하게 된다는 생각을 안고 온  
통장의 한마디 한마디의 구간에 뚜  
렷 한 운동의 자족을 물어온 부  
대의 지휘관들과 남편과 한결호  
에 선심정으로 공사장을 찾군  
하는 미더운 군인가족들.

창조는 우리가 행복은 후대

들이!

이번 불타는 애국의 의지를

안고 훌륭한 창조물을 완성해가

는 부대장들의 위훈에 떠받들

려 머지 않아 미래과학자거리의

현대적인 교정에서 학생소년들의

밝은 웃음소리는 끝없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글 및 사진 김영민

## 조선인민군 백일남소속부대에서

미감단계에 하는 것이 보편적  
정에도 남김없이 밟혀왔다.

공사가 시작되자 전에 지휘관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거두었지만 부대의 지휘관들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거두었지만 부대의 지휘관들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거두었지만 부대의 지휘관들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거두었지만 부대의 지휘관들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거두었지만 부대의 지휘관들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거두었지만 부대의 지휘관들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거두었지만 부대의 지휘관들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거두었지만 부대의 지휘관들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거두었지만 부대의 지휘관들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거두었지만 부대의 지휘관들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거두었지만 부대의 지휘관들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거두었지만 부대의 지휘관들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거두었지만 부대의 지휘관들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거두었지만 부대의 지휘관들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거두었지만 부대의 지휘관들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거두었지만 부대의 지휘관들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기초하여 최단기간에 빠른 성과

를 거두었지만 부대의 지휘관들

들이 작업량을 면밀히 타산한데

## 추석날과 더불어 꽂피는 우리의 민속전통

위대한 당의 혁명한 평도밑에 우리 나라에서는 민족의 유구성과 우수성, 고장한 정신세계와 고유한 생활종류가 빙어된 민속 전통이 시대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계승발전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것들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어나가는 여기에 조선 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맡기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합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어느 해 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민족 우수성과 그와 관련한 우리 인민의 풍습에 대하여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추석은 우리 인민들이 옛날부터 죄는 명절이라고, 지난날 우리 인민은 년중 설명절과 추석을 큰 명절로 축제에 쇠근을 하였다고, 기록에 의하면 우리 선조들은 세나라시기에 이미 8월 추석을 큰 명절로 축제였으나 추석의 유래는 세나라 초기나 그 이전시기부터였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었다.

계속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옛날에는 추석을 가우라 하였는데 이날에는 앞두고 인민들이 길 양평철도국 청화차대의 김성준 선수의 열굴에도 살비를 잡은 지 1년도 안되는 신진선수들이 단체 2동을 하는데로 강제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햇 꼬시 으로 밥과 송편, 찰떡과 같은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조상의 무덤을 찾아보았으며 활쏘기, 씨름과 같은 민속놀이로 하루를 즐겁게 보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속전통을 그 누구보다도 귀중히 여기고 빛내어나가는 여기에 조선 민족제일주의가 있으며 나라, 내 조국의 존엄을 맡기고 부강번영을 앞당기는 합다운 애국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판란식에서 경기 전과정을 지켜보았지만 다음번에는 온 나라에 혁명적령민이 차넘치게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말하는 강원도의 신기찰씨름감독의 열굴에도 기쁨의 파도가 차넘치었다.

이번에는 판란식에서 경기 전과정을 지켜보았지만 다음번에는 온 나라에 혁명적령민이 차넘치게 하는데 이바지 하겠다고 말하는 강원도의 신기찰씨름감독의 열굴에도 기쁨의 파도가 차넘치었다.

이렇듯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문화가 오늘날에는 정성 얼마나 아름다운 화폭을 펼치며 나날이 개화 발전하고 있는것이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풍습과 전통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끊임 없이 개선발전시켜나가도록 가는 끈기나 민족공원과 민족거리, 민 속이장을 꾸리도록 은정을 베풀어주시고 온 나라에 민족적 향취가 더욱 치어지게 하신 철제위인들의 현명한 병도의 손길아래 풍만한 민족적 전통에 걸친 경기장면을 보여주었다고 말하였다.

지난 3년간 경기에 출전하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나와 80kg급경기에서 단연 1등을 한 양평철도국 청화차대의 김성준 선수의 열굴에도 살비를 잡은 지 1년도 안되는 신진선수들이 단체 2동을 하는데로 강제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같은 경기에서 출전하는 자세로 춤을 펼쳤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민족 우수성과 그와 관련한 우리 인민의 풍습에 대하여 참으로 뜻깊은 교시를 하였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문화가 더욱 치어지게 하였다.

씨름협회의 한 일꾼은 올해의 전국적인 민족씨름경기에서 지난 시기 은퇴했던 로장선수들과 최근에 새로 두각을 나타내는 1등을 한 청원군 신암협동농장 농업근로자들의 열굴에서도, 얼마전 은평군에서 진행된 농업근로자들의 농악무도회 장에서 그 옛날 상무기 풍으로 강제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앞으로

같은 경기에서 출전하는 자세로 춤을 펼쳤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문화가 더욱 치어지게 하였다.

이렇듯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문화가 더욱 치어지게 하였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문화가 더욱 치어지게 하였다.

